

한강토에서 사는 한민족이건만 엇바뀌는 해를 접하는 북과 남의 모습은 너무도 판이하다.

축포와 초불로 밝아온 북남의 새해

평양의 대동강반에서는 승리의 축포가 터져

새해 2017년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평양의 밤하늘에는 환호하는 축포가 터져올랐다. 아름다운 노래선율과 더불어 천태만상의 신비경을 펼쳐며 천갈래, 만갈래의 불기둥이 하늘높이 솟

지역분쟁, 그로 인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지난해 세계도처에서 지속되고 그속에 공화국을 압박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소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울

한해, 기적의 한해였다.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고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비롯하여 핵능력고도화가 추진되어 온 행성에 충격과 감동의 거세찬 회오리를 몰아왔다. 단숨에의 기상으로, 만리마의 속도로 려명거리 건설이 추진되고 백두산

북도지구에 대한 북극진투에서도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여 자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었다.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승리만을 이룩해온 승자들은 지나온 한해를 가슴 뿌듯한 행복과 긍지로 추억하고있다.

지난해의 모든 승리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그대로 정책이 되고 사회적시책이 되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적제도인 공화국에서만 이룩될수 있는 기적적인것이다.

정권과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사회적제도를 지키고 받들려는 것은 공화국인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이 마음들로 뭉쳐진 공화국의 힘은 그 어떤 횡포한것도 굴복시킬수 있는 위력한것이다.

하기에 기적, 변혁, 승리, 남들에게는 낯설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이러한 말들이 공화국에서는 너무도 범상한것으로 되고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이고 승리를 축하하는, 미래를 축복하는 환희로운 축포들을 바라보는 공화국의 남녀로소의 얼굴마다에는 승자의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성과에 도

취함이 없이 새해에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가 한껏 어려있었다.

현재에 비쳐진 미래의

어둠을 밀어내며 광화문에 떠오른 초불의 대하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에서는 초불이 이해의 마지막밤을 밝히고있었다.

광화문에서 진행된 박근혜퇴진을 위한 열번째 초불집회는 송년의 마지막밤에 이어 신년의 첫시작에도 계속되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서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온 11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들은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일념을 담아 《송박영신》을 웨치며 날이 지새도록 집회를 벌리었다.

박근혜의 반인민적인 악정을 고발하는 《세월》호를 형성한 배를 만들고 《세월》호진상규명,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등의 글들을 써넣고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초불은 어둠을 밝힌다. 백만, 수백만, 년말까지 연천만인상의 초불이 떠오른 것은 남조선사회가 짙은 어둠의 사회이기때문이다.

사회의 모든 부는 인민이 창조하지만 권력과 부를 1%의 특권층이 차지하고 99%의 인민들은 《개, 돼지》로 모욕당하고 짓밟히는 사람 못살 암흑세상이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초불 집회장들에서는 불의와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고 환호한것이어서 축포를 바라보는 공화국인민들의 얼굴들이 그토록 밝고 명량하였던것이다.

암흑의 세상을 뒤집고 민중이 인간다운 존엄과 삶을 누리는 새세상을 안아올 각계의 열망이 분출되었다.

남조선 각계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탄핵안 결정을 요구하는 염서를 보내는 운동을 벌리면서 새해에 박근혜 《정권》이 즉각퇴진하고 《국정》통락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수 있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해에는 (정권) 교체》, 이것은 거대한 초불바다를 이룬 100만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터친 하나같은 소망이다.

그들은 《송박영신》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고 하면서 《초불

을 든 시민들이 자랑스럽다.》, 《집회가 계속되어야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의 뜻을 알고 제대로 판결할것이다.》, 《마지막날까지 국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싶다.》고 한결같은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 체포, 공범자처벌, 황교안사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결정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의 100m앞까지 행진하였으며 새해를 알리는 종을 치면서 《송박영신》을 웨쳤다.

이날 투쟁을 두고 남조선인론들은 박근혜가 물러날 때까지 남조선사회가 바로 설 때까지 초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것이라고 평하였다.

지난 몇년간 박근혜를 비롯한 범죄자들에게 속히 위 배앗긴 꿈과 희망을 되찾아 새해에는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한결같은 소망과 기대감이 어린 남조선의 초불바다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에서는 이처럼 환희의 축포로, 남에서는 분노와 투쟁의 초불로 2017년의 첫 아침이 밝았다.

본사기자 황진욱



구쳐오르는 축포에는 환희와 기쁨이 차넘쳤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자랑을 안고 쓴 공화국의 축포이다. 그만큼 지난 2016년은 공화국에 있어서 승리와 기적으로 가득찬 긍지높은 한해였다. 평화와 안정은 누구나 바라는것이지만 내전과

러나온것은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강력의 힘찬 마차소리였으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행복에 겨운 노래소리였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서막을 연 지난 한해는 공화국에 있어서 그야말로 년말까지 사변의 이어진 충격적인 비약의

영웅청년3호발전소와 류경안과종합병원들을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공화국의 의지를 꺾을수 없고 나아가는 길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웅변해주었다.

공화국은 뜻밖의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

미국이 남조선에 준것은 (5)

살륙과 범죄의 전시장

미국은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온갖 살륙과 범죄만행들을 거리낌없이 저질러왔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와 살륙만행들은 《자유》와 《변역》의 탈을 쓴 아메리카식인종들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미군은 남조선에 침략과 지배의 발을 들이던 첫날부터 피를 즐기는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었다.

미군이 1945년 9월부터 1949년 7월까지 기간에만도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을 근 10만명이나 학살한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특히 침략적인 조선전쟁을 준비하던 1949년 7월부터 1950년 봄까지 몇개월 기간에만도 미군은 10만 9 0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전쟁기간에 미군이 조선반도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살장으로 만든 사실자료들을 펴거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미군의 로근리 민간인대학살만해도 그 하나이다. 조선인민군의 노도와 같은 반공격에 의해 도주하던 미군은 로근리선에 이르러 미군폭격기를 불려 피난민들의 머리 위에 출몰탄을 퍼붓고 살

아남은 남녀로소가 주변의 골간으로 피신하자 산의 앞뒤면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며칠동안이나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골간을 남조선주민들의 시체더미로 만드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전후에도 미군은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계속 강점하고 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약탈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강점군인 미군에게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은 한갓 저들이 심심풀이를 위해 총을 마구 쏘아대는 과녁에 지나지 않았다.

나물개는 소녀를 《땡》이라고 쏘아죽이고 송유관 부근에서 놀고있던 3살 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총으로 쏘죽인 사건, 구두땀이 고아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칼로 란도질하고 뼈저로 발톱과 머리카락을 잡아뜯은 후 전신에 골탄칠을 하여 나무상자에 처넣고 못을 쳐 직승기로 실어 내던진 1958년의 부평소년직승기계착사건, 나무하는 농부를 《노루》라고 쏘죽인 1962년의 파주나무군사살사건, 《M-16》소총 성능시험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명의 주민들을 과녁으로 세워놓고 조준사격하여 학살한 1981년의 총기관사사건 등은 미군의 범죄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1967년

부터 1987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미군범죄건수는 무려 3만 9 452건에 달하였다. 민족적격분을 더욱 자아내게 하는것은 이중에서 미군범죄자들이 처별을 받은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는것이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말그대로 치외법적인 존재로 군림하여왔다.

특히 미국은 1980년에 자유와 민주를 위해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폭도들의 란동》으로 모독하면서 미군범죄를 내세워 남조선의 살인공정부대를 내몰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무차별적인 살륙작전을 벌려 온 광주시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썩어빠진 패륜패덕에 물젖은 미군은 남조선녀성들을 저들의 변태적인 수욕을 충족시켜주는 패륜대상으로 여기면서 강간살인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군은 저들의 수욕을 채우기 위해 60살이 넘은 할머니이건 6살, 8살의 나 어린 소녀이건, 만삭이 된 임신부이건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성폭행을 가하였다.

녀인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 벌거벗기고 집단 통욕한 후 가족제적으로 마구 때리고 온몸에 땀기 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동투친기지촌의 녀종업원을 통욕한 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죽인 윤금이살해사건, 할머니를 골목과 주차장에 끌고다니며 3차례나 성폭행하고 10대의 녀학생을 무려 4시간동안이나 온갖 변태적이고 령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이 남조선녀성들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정도이다.

2002년 길가던 나 어린 녀중학생들을 장갑차의 무한계도로 깔아뭉개여 처참하게 학살한 사건은 피를 즐기는 승냥이무리, 인간중오사상이 풀수에 짝 찬 미군살인마들만이 저지러수 있는 치명적인 반인륜적범죄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생화학 무기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생체실험까지 진행해온 사실들은 미국의 야수성을 더욱더 고발하고있다. 최근에도 미군은 위험수치가 극도에 달하는 탄저균, 페스트균 등을 비법적으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서 반입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꺼리지 않았다.

침략군이며 강점군인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등지를 틀고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류현철



《적기대선》을 폄하하고 무대하가 되어 가는 남조선의 현실

지난해말 미국정계의 한 인물이 쿠비밀리에 남조선에 날아들어 정보원 원장과 정계의 인물들을 정어 만나 회담을 했다고 한다.

회담에서는 남조선에서의 조기 《대통령》선거, 《개헌》가능성, 다음이 《정부》와의 관계 등을 논의한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새해를 앞두고 미국정계의 인물이 도적고양이처럼 남조선에 기여 든것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두말할것없이 앞으로 남조선에서 있게 될 《조기대선》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를 안받침할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도 있다.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와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 그리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남조선의 야당후보들에 대한 비난여론을 내뿜고있다.

야당후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문제

가 야기되고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싸드》배치는 물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작하게 한 미국에 대한 격노의 들불로 번지고있는것이다.

밀뿌리채 흔들리는 친미보수기반을 다잡고 남조선민심의 반미기운을 한시바삐 돌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미국의 움직임

을 재촉했을것이다. 남조선에서 역대 친미 보수 《정권》의 수립에는 미국의 마수가 뻗치지 않은적이 없었다.

2007년의 《대선》때도 미국이 수많은 선거전문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막후에서 지휘하였고 2012년에는 미국무성 관련원이 서울에 날아들어 《대선》후보들의 《대북 및 대미관》을 타진하고 《사상검증작업》까지 벌리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리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출현은 미국의 모략과 배후조종의 산물이었다. 그런 미국이 남녘의 초불민심을 우롱하며 박근혜 《정권》과 같은 친미 보수 《정권》의 연장을 이루어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한갓 예속과 굴종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저들의 구미에 맞는 사대매국 《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모략적인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남조선인민들의 보수 《정권》 퇴진투쟁과 반미기운은 더욱 고조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새해벽두부터 민심에 역행한다

북남관계의 곡절과 과 국으로 이어진 지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다.

겨레의 이러한 념원과 열망을 담아 공화국은 새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화국의 선의에 대결적망언과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2일《정부》시무식이라는데 머리를 들이민 《국무총리》 황교안은 《안보력량강화》나, 《북의 핵위협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다.》느니 하는 망언을 뽐내며 대결적자세를 드러내보였다.

한편 남조선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전투기를 타고 공군전투기들의 비상출격훈련을 지휘하며 전쟁연습에 광분하는가 하면 남조선육군 1군단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

는 미명하에 《K-9》포와 대포병탄지레이다 등을 동원하여 경기도의 군사훈련장에서 대규모포실탄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런가하면 동서남해에서는 남조선해군 전투전대급 해상기동훈련이 광란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신형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등 20여척의 전투함선과 해군특수전부대, 해상초계기 등이 동원되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해상초계기를 타고 전쟁연습에 돌아왔다.

남조선당국이 새해벽두부터 대결망발을 뽐내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한것은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지난 공화국의 애국애족호소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조 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화를 바라는 시대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엄중한 불장난소동이다. 오늘 북과 남, 해외를 막론하고 전체 조선민족이 한결같이 바라고있는것은 동족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며 긴장격화와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이다.

하기에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한 공화국의 신년사는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세력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동족대결과 반공화국군사적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정책과 군사적도발책동은 북남관계과국의 기본요인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다.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대결소동이 북남관계와 평화를 얼마나 파괴적후과를 끼치고있는가는 지난 해 정초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된 남조선당국의 류례없는 특대형도발과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전쟁발발의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바다물이 짠것을 알려면 한모금이면 족하다고 하였다. 새해 정초에 있는 남조선당국의 호전적

망언과 전쟁광기는 그들이 올해에도 북남관계개선과 통일, 평화에 담을 싣고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의 길로 한사코 가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어 북남관계를 파괴하면서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치는 역적무리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도, 나라의 자주적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해내외 온 겨레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환장이 되어 분별없이 헤메이는 어리석은 역적들에게 차례질것은 종국적과멸밖에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4자성어에 띄엄띄엄 담금

지난해말 남조선의 《교수신문》은 2016년을 특징짓는 4자성어들 중에서 《군주민주》를 첫번째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군주민주》란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므로 강물의 힘으로 배를 띄우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군주민주》를 선정할것에 대해 신문은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이 헛된 망상에 빠져 《유신》독재를 재현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침몰시키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전진시키는것은 민중이라는 력사의 필연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역천자망》(하늘의 뜻을 거스르는자는 뜻망하기마련이라는 뜻)과 《로직성해》(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 등이

지난해를 특징짓는 4자성어로 선정되었다. 언론들은 이 4자성어들이 《국회》에서 박근혜의 4자성어를 한 수백만의 초불민심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3년에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도행역시》, 2014년에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것과 같이 모순된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인다는 뜻의 《지록위마》, 2015년에는 사회가 무법천지로 되었다는 뜻의 《혼용무도》가 4자성어로 선정된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박근혜가 집권해온 전기간은 민의를 짓밟고 갖은 거짓과 부패로 사회를 혼란과 과국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나날이었었다. 박근혜의 악정은 집권 4년이 되는 지난해에는 최절정을 이루

어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끝끝내 그 초불에 타 임기도 못 채우고 감옥에 가야 할 신세가 된것이다.

현재 박근혜의 지지율은 력대 최악인 4%로서 년을 즉시 탄핵시켜 감옥에 처넣으라는 여론은 80%이상에 달하고있고 역도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분열와해되어 빈사지경에 처하여있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는 법이다. 민심의 격랑에 휘말려 뒤집혀진 《박근혜》의 처참한 운명은 역적패당이 저지른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만고죄악의 응당한 귀결이다.

현실은 민심이 곧 천심이며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은 가장 비참한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절으로는 《차별화》, 속은 천박광

남조선에서 박근혜 탄핵사태로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의 처지가 비참하기 그지없다. 그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에 개혁신당을 올려앉혔지만 오히려 역작용만을 일으키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새로 올라앉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는 2016년 12월 30일 기자간담회라는것을 벌여놓고 《핵심친박청산은 당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박근혜를 4년동안 보좌하였던 당대표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였던 인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친박핵심들의 탈당을 요구해나섰다. 여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친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않으면 당을 재건할수 없다.》느니 하며 동조해나섰다. 박근혜와의 《차별화》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을 《새누리당》에서 내쫓으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에 친박계가 발끈한것은 물론이다. 서청원, 최경환을 비롯한 핵심친박 10명이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 《마지막 1명이 남을 때까지 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변친적이 그것이다.

이런 속에서 《새누리당》은 당명까지 뜯어고쳐 박근혜와의 인연이 없는것처럼 생색까지 내려하고있다.

《박근혜 색깔지우기》는 《새누리당》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일명 《개혁보수신당》이라는것을 조직한 탈당파들 역시 자기들은 박근혜의 공범자가 아니라는듯이 탄전을 피우고 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저저마다 《박근혜 색깔지우기》 놀음에 매여달리는것은 결코 박근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낡은 부패보수정치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와의 《차별화》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민심이 배격하는 박근혜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책들을 아직도 미호두둔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심보가 무엇인지 가늠케 한다.

한마디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의 《박근혜 색깔지우기》 놀음은 분노한 민심의 심

판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박근혜의 가면을 쓰고서는 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을 이룰수 없다는 얄은 술수에서 출발한것이다.

지금 《새누리당》과 그와 같고같은 《개혁보수신당》은 어떻게 해서나 재집권의 어리석은 망상을 실현해보겠다고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박근혜 색깔지우기》 놀음을 벌리면서 저저마다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을 끌어당겨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하는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하루동안에도 열두번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보수세력들의 체질이고 습성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은 둘로 쪼개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권력을 위해반기문을 우두머리로 내세우고 다시 재결합할수 있다는것이 여론의 평이다.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친박계나 떨어져나와 탈당한 비박계나 다 같고같은 박근혜의 공범자들이고 부정부패의 원흉들이다.

보수집권세력들이 《박근혜 색깔지우기》 놀음으로 여론을 오도하는 미사리구를 아무리 늘어놓아도 분노한 민심의 준엄한 징벌의 파녀에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에서 2017년 새해는 제야의 어둠을 밝히는 거대한 초불의 대하와 함께 밝아왔다. 박근혜죽자 퇴진을 불러 저녁마다 타오른 초불, 무려 천만을 헤아리는 그 초불이 새해의 첫 아침에도 잠들지 못하고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져 또다시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었다.

알려진것처럼 설날아침 청와대에 참모들을 불러들인 박근혜는 《떡국 조찬》이라는 먹자판을 벌려놓고 《고생이 많았다.》, 《최선을 다하자.》는 등 낮뜨거운 위로와 당부를 거듭하였다. 그리고는 오후에 청와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자기가 저지른 특대형정치추태를 또다시 부리었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정지를 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생색을 그대로 내며 《신년기자간담회》라는것을 벌려놓은것자체가 어불성실이다. 뿐더러 《마음이 아프다.》느니,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탄력을 키

워야 한다.》느니, 《모든게 정상으로 바로잡혀보람찬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느니 하며 철면피 퇴진을 불러 저녁마다 타오른 초불, 무려 천만을 헤아리는 그 초불이 새해의 첫 아침에도 잠들지 못하고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져 또다시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었다.

알려진것처럼 설날아침 청와대에 참모들을 불러들인 박근혜는 《떡국 조찬》이라는 먹자판을 벌려놓고 《고생이 많았다.》, 《최선을 다하자.》는 등 낮뜨거운 위로와 당부를 거듭하였다. 그리고는 오후에 청와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자기가 저지른 특대형정치추태를 또다시 부리었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정지를 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생색을 그대로 내며 《신년기자간담회》라는것을 벌려놓은것자체가 어불성실이다. 뿐더러 《마음이 아프다.》느니,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탄력을 키

들이 즐거움과 소원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각에조차 왜 남조선인민들은 항거의 초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는지, 왜 그토록 분노하고있는지 아직도 리해못하고 리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저밖에 모르는 악녀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자기의 범죄 혐의들을 조목조목 전면 부정해나섰다. 최순실사건도, 권력형부정부패행위도 모두 부정하며 자신은 무고하고 모든것이 오해와 외곡, 허위와 과장이 라고 했다.

특히 《세월》호참사당일의 7시간의혹에 대해 변명하고 정당화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제 할것은 다 했다고 뽐내고 잘못을 철저히 부인해나섰다.

죄의식과 반성이라고는 꼬물꼬물 없는 천하악녀의 뽐뽐스러운 처사이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

《회》를 계기로 박근혜의 본색이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비겁한 몸부림으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부인하려는 박근혜에게 더 이상 기대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7년에 초불혁명을 완수하여 새로운 세상을 기어이 안아오자고 하면서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박근혜가 자기 할수 록 초불이 더욱더 세차게 타오를것은 분명하다.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가 입부리를 늘어낼수록 죄목은 더 커지고 분노의 민심이 당기는 징벌의 울가미는 더욱더 조여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천하악녀의 뽐뽐스러운 추태



북남관계를 더욱 해칠 대결분자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유엔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이 퇴임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공식표명하면서 공화국을 걸고 이리저리러쿵 시비질을 늘어놓았다. 그는 《북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많은 자원을 쓰고있는것이 안타깝다.》느니, 《북이 193개 유엔성원국 중 가장 무책임한 나라》라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늘어놓으면서 《북은 더 늦기 전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는 주제넘은 훈시까지 해냈다.

반기문이 이른바 《북핵문제》를 두고 악담질을 해댄것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유엔에서 반공화국제제가 조작되자마자 그는 《환영》이니,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중의 하나》라느니, 《유엔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적극 리해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목에 피대줄을 들이주었다.

반기문의 이러한 추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상전과 남조선보수세력들의 비위를 맞추어 그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하나 다음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보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얄은 술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기문과 같은 간상배, 철저한 승미사대주의자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다면 가뜰이나 험악한 북남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모두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이다.

반기문은 10년동안 유엔 사무총장자리에 앉았으

면서 그 무슨 《핵문제》를 걸고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되받아넘기는 꼭두각시, 앵무새노릇만 했다.

그는 짬만 있으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시험을 두고 《도발》이니, 《용납할수 없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으며 유엔사무총장의 감투를 쓰고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모든 대북리해결의안은 전면적으로 리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동족을 모해하고 압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대결망동은 반공화국국립삼책동의 앞장에서 날뽐 리명박이나 박근혜와 비교해 볼 때 조금도 짝지 않는 다. 결국 이런자가 《대통령》병거지를 뒤집어쓴다면 과국상태에 처한 북

남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다. 반기문은 지난 시기 자기에게 리름지 못한 일에서는 오히려 소리 빠져나가기만 해서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받은자이다. 그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정면도전하는 망동만 일삼고있는것은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 말하기에 참으로 수척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반기문은 온 강물을 흐려놓는 한마리의 늪은 미꾸라지라는 오명을 더 뒤집어쓰기 전에 스스로 정치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것이 현명한 처사라는것을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더욱 부강해질 2017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온 나라는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넘쳐 신심드높이 새해의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기적과 승리의 사변들로 이어져온 지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새해 2017년의 보다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그이의 신년사는 올해에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 요귀한 지침이며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하는 무한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이 지난해를 기적과 변혁, 승리의 한해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니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의 비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에 절세위인의 신년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2016년을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수 있었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수소란을 비롯한 각종 핵무기들과 운반수단들도 갖춘 동방의 핵강국으로 치솟아올랐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성공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 가는 넓은 길도 닦은 공화국이다. 적대세력의 제재와 압살책동을 쳐갈기며 회한한 려명거리건설이 추진되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홍진도간석지 1단계, 황해남도물길 1단계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뜻밖의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도 짧은 기간에 말끔히 가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식경제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역센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2016년에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산과 파수, 수산부문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은 지난해의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모두의 가슴마다에 역척불변의 신념으로 새겨준 감동의 나날들이었다.

하기에 새해의 첫기슭에서 전체 인민은 그이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올해에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박,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기적의 지난해를 통하여 비상히 양양된 려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에는 공화국이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제재와 봉쇄의 울가미를 더욱 조이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지난해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 올해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기는 승리의 해, 비약의 해로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결심과 의지가 응축되어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부문별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는 그이의 뛰어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비범한 령도가 있어 올해에도 인민의 행복은 더욱 꽃피나게 될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며 떠날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이라고 하신 그이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속에 더 높은 명마루에 올라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밝은 매일, 기적과 위훈으로 충만될 한해의 날과 달을 그려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포부에 넘쳐 2017년 애국의 진군길에 나섰다.

본사기자 주일봉



영원히 울려갈 행복의 노래

가슴벅찬 희망과 신심에 넘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공화국이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시련의 장막은 중첩첩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용기는 백배하다.

무엇이 공화국군민으로 하여금 이렇듯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게 하는 것인가.

믿음이다.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희망찬 새해에 더 좋고 행복한 생활, 더 밝고 창창한 앞날이 활짝 열리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리라는 굳은 확신이다.

돌이켜보면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1961년에 창작되었다.

노래가 창작된 1961년에 공화국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열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4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인민들이 절절히 념원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 창설하여놓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었다.

참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함께 인민도, 인민의 생활도 새롭게 탄생하였던 격동의 시기였고 그 벽찬 시대의 환희가 그대로 가사와 선물로 엮여진것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탄생가와도 같은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그 후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사회주의조선을 상징하는 노래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눈부신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인민의 약동하는 삶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 일떠세워진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년대를 이어가며 세상이 부럼없는 행복을 누려가는 궁지와 영예, நட나든 기쁨과 행복을 안고 이 나라 인민누구나 심장의

로 절절히 부르고 불러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이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단순히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공화국인민들의 현재의 행복을 느끼고 확신할수 있게 하는 숨결이고 맥박이다.

이 노래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이 나라 인민의 생활속에 더욱 가깝게, 뜨겁게 울려퍼지고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는 노래구절을 부르느라 자애로운 원수님의 손길아래 아이들의 궁전으로 회한하게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손을 맞잡고 춤추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이며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북부피해지역인민들이 황홀한 새 집들에서 걱정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들에서 부모없는 실어를 모르고 무력무력이라는 복받은 원아들의 모습,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수풀처럼 일떠서고있는 인민사랑

의 창조물들에서 인민들이 행복에 겨워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지난 2016년 한해동안은 나라 강산을 진감시킨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뜻깊은 새해에 이 노래는 더 높이 울려퍼지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올해에 공화국은 더욱 흥하고 인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 더 큰 복이 끝없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하여 이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인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머지않아 완공될 려명거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017년 신년사에서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은 나라의 천만 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 안고 3월 그이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은 세계가 지켜본것처럼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건설이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그때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수소란시험과 주권국가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인 인공위성발사를 결코그들면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장 극악하고 비렬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었고 미국, 일본, 남조선 등

지에서는 《독자제재》라는것들을 련이어 발표하며 공화국을 최대로 압박해나섰다.

한편 핵무기를 적제한 미국의 각종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전단까지 조선반도로 이동전개하며 핵전쟁발발위험을 최대로 고조시켰다.

세계가 최악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에 직면한 공화국의 대응과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켜보고있던 바로 그때 조선에서는 핵탄포개 등 자위적군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련속 파시되고 그속에서 려명거리를 건설한다는것이 공포되었다.

이제 보통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은 불법무도한 호도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지금의 제재와 위협보다 한 재재와 위협을 받는다고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힘으로 인민이 세상 부러운것없이 잘사는 사회주의명명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라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 려명거리건설선포에 그대로 응축되어 세상을 뒤흔들었다.

은 한다면 하는 나라》라고 감동을 표시했다. 지난해 공화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서는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들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은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을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건설력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피해복구전에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도 재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몇천배로 더 귀중하다고 밝혀었다.

두달남짓한 짧은 기간에 대재앙의 폐허우에는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피해지역의 수만세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고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되었다.

뜻깊은 새해 2017년 이 막을 올린 지금 려명거리건설도 마감단계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건설자들은 새 거리를 21세기 에너지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훌륭히 완공하기 위하여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이제 머지않아 세상사람들은 훌륭히 완공된 려명거리에서 새집들이기쁨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북남관계개선은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고 밝혀주시었다.

과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며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이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되고 우리 민족이 갈라져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이 나라에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하여 지난 2000년에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물결이 대하처럼 굽이쳤고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북과 남, 해외가

하나가 되어 웨치는 조국통일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하지만 2008년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한 때로부터 북남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어 왔으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총포란이 오가는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도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돌격대로 앞장선 박근혜당에 의해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이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 폐쇄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압살하려는 반통일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하고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한가닥의 대화도,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오직 극도의 정치군사적대결만이 지배하고있다.

북남사이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화해와 단합은 로원해지고 종당에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지 않는 무력충돌과 전쟁이 일어나는 비극이 산생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바와 같이 과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북남관계의 개선이 없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말할수 없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종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공화국은 북남관계의 과국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아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밑에 가장 정당한 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소동에 광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최근 시기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운명의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가련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북남대결을 더욱 조장, 격화시키는 불순한 망동을 거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발악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아가려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시뮬음

어서 열자 자주통일의 대통로

오직 그 이 뿐

통일대회합이 우리를 부른다

김태룡

김윤식

훤넋던인 강산 눈부시게 아름다워도
그이 존안 비옵지 못하면
그 무슨 새해이겠습니까
가슴에 품은 고품과 소원
꽃피워줄 태양의 해살 없다면
그 무슨 새해라 하겠습니까

새해의 하늘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겨레의 기다림속에 환호속에
연단에 높이 서서여
신년사를 하시는 김정은원수님
백두에서 한나까지
매혹으로 격동으로 설레는 2017년입니다

보고있습니까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앞에
나서신 거룩한 모습
하시는 말씀말씀 얼마나 뜨거움에 불타고
터놓으시는 진정 얼마나 목메이는것입

니까
듣고있습니까
하늘같은 도량으로 펼치여주신
숭고한 경륜에 넘치는 대범함
통일강국으로 온 겨레를 부르는
힘이 백배로 용솟음치는 그 말씀

눈앞이 확 트이고 가슴은 넓어집니다
통일희망으로 새해의 하늘 푸르롭니다
그이를 모셔 이해에도
통일대진군의 발걸음 우렁차고
자주통일의 대통로 활짝 열리려니

그이의 뜻으로 그이의 의지로
새해의 첫 아침 밝았습니다
통일의 아침도 이 땅에 밝아옵니다
아, 한없는 경모심에 젖어 겨레가 따르는
그이는 오직 한분 원수님뿐이십니다

부푸는 가슴마다 희망은 넘치고
가야 할 길은 멀리 앞에 있어도
겨레의 마음은 벌써 그날로 달린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뜻깊은 장이 펼쳐질
그날을 겨레는 가슴에 그려본다

얼마나 가슴치는 불같은 민심이
민족을 위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신년사 구절구절에 맥맥히 차넘치는가
통일의 대회합장에 겨레를 불러주신
오,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호소여!

서로 만나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 열어야 진정 러놓을수 있거니
북과 남, 해외 우리 모두 같이 가자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의 차이 뛰어넘어
막아서는 분렬의 온갖 장애 들부시며

홀려온 력사는 말해주고있지 않느냐
홀어지면 죽고 합치면 사는 력사의 진리를
하나로 뭉쳐 우리 겨레 이룬 소중한 모든것

그것이 귀중하거든 그것을 잃을수 없거든
만나자 통일대회합의 드넓은 광장에서

그날로 가는 길 어이 험하지 않으랴
사나운 광풍도 막아서는 험산도 있으리
허나 물러서면 통일은 멀어지고
그 길을 끝내 열어놓지 못한다면
통일은 두고두고 소원으로만 남으려니

그 누가 열어주지 않는 길
기다려 저절로 열리지 않는 길
바로 우리 힘 우리의 손으로
기어이 열어야 할 통일대회합의 길
그 길에 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조국이

가자, 새해의 첫 기슭에서
통일열망으로 가슴 래우는 겨레들이여
마음을 합치고 발걸음 맞추자
통일대회합이 우리 겨레를 부른다
민족의 령수 김정은원수님 안아오실
통일조국의 그날이 우리를 부른다

물는다 민족의 광심앞에

삼천리가 끊어오른다

김송림

김영일

분렬의 세월우에
또 한돌기 아픈 년륜이 새겨지는
새해 2017년
문노니 겨레여 새해의 푸른 하늘에
그대들 엿어보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 비긴 하늘에 물어 알라
겨레의 가슴 헤쳐보아야 알수 있으랴
반목과 불신의 싸늘한 칼바람이
전쟁의 불구름 몰아온 70여년
그 비극의 70여년이 말해주고있지 않
느냐

5천년 조상의 땅 하나의 민족이
외세에게 무참히 갈리운것만도
역장이 무너져 통분할진대
이 땅에 언제 한번 가신적 있었더나

전쟁의 질은 화약내가
홀려간 세월엔 아프게 새겨져있다
뜨거운 손 맞잡지 못하고
동족끼리 서로 대결할 때

하늘엔 불구름 가실날 없고
그만큼 겨레의 피눈물 마를새 없었음을

나서라 겨레여
가슴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다면
피맺힌 소원이 통일이라면
제도전복, 《변화》의 헛된 꿈꾸는자들 쳐몰아
내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 펼쳐나가자

북남관계개선—이는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
이것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면
통일은 영영 이룰수 없거니
전쟁을 막아 산악처럼 일떠서라
평화를 위해 격랑되어 일떠서라

아, 전쟁이나 평화나
분렬이나 통일이나
시대가 력사가 우리에게 묻는다
민족의 광심이여 대답하라
이 시대, 이 력사의 준절한 물음앞에

새해의 첫 기슭에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아도
70여년 아프게 홀려홀려온
분렬의 력사를 되새겨보아도
가슴을 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민족의 숙망 통일을 가로막는
한사코 동족대결에 피눈되어 날뛰는
내외반통일세력이 이 땅에 있는 한
언제가도 통일은 오지 않는다는것

눈물마저 말라버려 재가 되어버린
생리별한 혈육들 그 가슴에 쌓여있는
울분의 피덩이를 보라
하나의 강토를 무참히 동강낸 외세
그 외세가 준것은 피와 눈물뿐

민족의 숙적들과 입을 맞추며
사대매국에 찌든 역적의 무리
그 무리가 겨레에게 준것은 또 무엇인가
반목과 질시 동족대결
더더욱 짙어진 분렬의 먹구름 아니었던가
다시 마음속에 번져보는

피절은 분렬의 력사가 터치는 절규여
민족의 혈맥 동강낸것도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는것도 외세
그 외세에 숨줄을 걸고
동족대결로 살길을 찾는것도 역적무리

땅을 쳐야 하는가
광광 가슴을 쳐야 하는가
이 비극 이 절통함앞에서
외세와 사대매국의 무리 그대로 두고
우리 2017년의 날과 날 맞을수 있다더나

심장이 끊어오른다
피가 용암처럼 타끓는다
일어나라 떨쳐나서라 겨레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 짓부서버리는
전민족적 투쟁에 과감히 나서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갈 새해
오, 그 힘으로 분렬의 광풍 쳐몰아내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가리라
통일열기로 삼천리가 끊어오른다

사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주제 106(2017)년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찬탄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데 대한 문제 등 올해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천명하신 강령적 가르치심은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온 겨레를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나라가 분열되어 70여년, 더 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공화국은 지난해에도 적극적으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앞당겨 성취할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원장을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략과 방도들을 밝혀 주시고있다.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받아안고 지난해 공화국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렸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밀부리쳐 뒤흔들어놓았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의 힘찬 웨침속에 남조선전역에서 거세차게 떠오른 대중적초불시위투쟁은 청와대악녀를 산송장, 《숨쉬는 미이라》의 신세로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

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 발표 열돛이 되는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마흔다섯해전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채택 발표된것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희망의 밝은 빛을 안겨준 민족사적사변이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7.4공동성명의 뜻과 정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된 속에 2007년 10월 또다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10.4선언이 발표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발표 열돛이 되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

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미래에 대해 말할수 없다. 력사적인 10.4선언도 바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과구상대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하여 서로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데 대해 화약하였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증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남조선당국은 무력대공화국의 자위적행사에 대해 결코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또한 이 땅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높음을 견어치워야 한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조급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나갈수 있다는 것이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하였던것처럼,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남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15시대를 개척한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개최제안에 호응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공화국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이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

서버려야 한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한다. 통일에국의 승결로 높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깊은 해로 빛내어나가야 할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남조선의 언론들이 널리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남조선의 《런뉴스》, 《CBS》, 《뉴스1》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널리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주요하게 언급하시었다고 하면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

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해 강조》, 《평화통일을 원하는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언명》, 《북남관계개선은 평화통일의 출발점이자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 등 상세한 내용들을 전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 대시정책철회를 주장》,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 등의 제목을 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개선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갈데 대해 강조하신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을 실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크나큰 격정에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었다.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힘이 솟고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은 눈앞에 환히 안겨와 신심과 용기가 백배해진다.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은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것처럼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이 합쳐지고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은 민족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끊임없는 전쟁연

세해에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격동으로 높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은 현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통일신심이 백배해진다

조국통일운동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 현시기 조국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무한히 고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가 온 겨레의 심장을 격동으로 높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겠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원 김강철

무된 해내외의 온 겨레와 힘을 합쳐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력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 발표 열돛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명국

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가는 지름길이 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안의 전체 당원들은 온 겨레와 동귀일체하여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발표 열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총매진하겠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로 나서서 기승을 부리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기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고 북남관계도 온 겨레와 같은 과구상대에 처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셔버리는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개선과 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 락랑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어울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건본실, 재단작업장, 재봉작업장, 포장작업장,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조종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건본실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 가방들을 진렬해놓았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가방천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들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았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율을 95%이상 보장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종합적인 가방생산기지답게 기술준비실과 도안창작실도 잘 꾸려놓았으며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도록 공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생산체제도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완성제품창고에는 가방이 그득히 쌓여 있고 원자재창고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



장과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등에서 생산한 가방천과 자크, 레프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들이 가득 차있는데 정말 흐뭇하다고 하시였다.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제작과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건설이 끝나는것과 함께 생산을 시작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상표를 특색있게 만들데 대한 문제, 질제고에 큰 힘을 넣어 공장제품을 인기상품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가방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도안창작을 잘할데 대한 문제, 연령신체적특성에 맞게 가방의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동을 짜고들며 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

양가방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의 계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도들에 가방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증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남보다 먼저 최상의 수준에서 기여이 끝내고야 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세에 의해 평양가방공장과 같은 희한한 창조물이 보란듯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해전투에 진입한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생산에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